

10년 단위 장기예측 시대 변화 반영 못해

광주시 도시계획
미래·정체성이 없다

<1> 실효성 없는 장기계획

광주시가 실현 없이 계획만 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법률과 지침에 따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다보니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시청 담당부서 책상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미래발전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일보보는 광주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시장 교체 시기와도 안맞아
수십억 들어 수립 탁상행정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광주의 도시공간을 좌우하는 계획들이 지나치게 장기간을 예측하고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수립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시기와 엇갈리면서 공약사업과 기존 도시공간계획이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수십억원을 들여 수립되고 있는 이들 계획이 시민의 공간을 얻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어울리게 계획 수립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 2월 3년에 걸쳐 11억5800여 만원을 투입한 '203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 앞으로 12년 뒤를 목표연도로 하고 있는 이 계획의 기본 자료는 2014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 장기간을 예측하는 계획을 단계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으로 작성하다보니 실제로 적용할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5년마다 계획을 정비할 수 있지만, 4년마다 단체장이 바뀌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30 도시기본계획'은 광주 미래 발전상을 담은 정책계획, 토지이용·기반시설·공원·녹지 등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또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전략을 제시한다. 도시의 미래 밑그림이자 모든 광주시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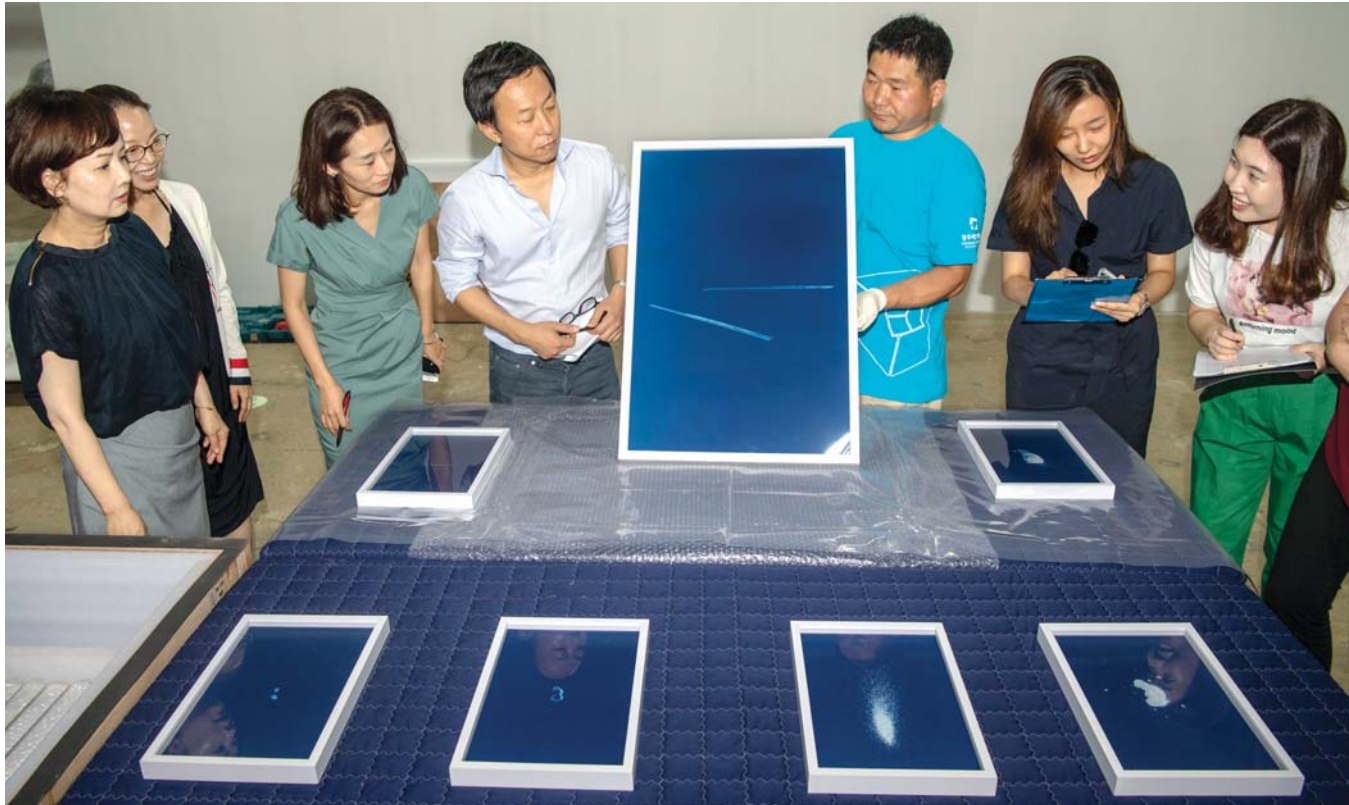
민선 6기 수립 당시 시민 참여를 강조하며, 시민참여단, 계획지원단 운영을 통해 2030년 광주시 미래상을 '자연과 첨단이 만나는 예술도시, 광주'로 설정했다. 하지만 향후 12년간 단체장, 시민 대다수가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 인구 감소, 도시 재생 등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통계청이 예측한 2030년 광주 인구(149만5000명)를 10만명 이상 초과한 170만명으로 설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30년 170만명의 인구를 예상하면서 필요한 주거용지 면적을 95.9㎢로 설정, 2014년 83.3㎢보다 무려 12.6㎢를 주거용지로 추가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부풀려놓으면서 모든 계획이 '개발'을 강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결국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 대다수는 공원 녹지 면적 증가, 대중·녹색교통 중심 시스템 구축 등을바라고 있어 계획에 이를 반영했지만, 계획수립 1년6개월여가 지난 후 실제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법률과 상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이 없다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18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일 광주비엔날레 제2전실에서 방글라데시 무넴 와시프 작가의 '씨앗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작품 공개행사가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 구축 전남, 초소형 전기차 산업·서비스 육성

혁신성장회의, 정부·지자체 2조5천억 투자 일자리 1만개 창출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대표 현안인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의 발굴·확산과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의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 구축, 전남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지원사업이 정부가 제시한 '지자체 혁신성장 주요지원 계획' 중 재정지원 확대 사업으로 꼽혔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 등 지역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해 맞춤형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사·도별 협의체도 내달 출범한다. 지역 혁신사업의 주체가 정부 부처와 각종 협의체에 분산돼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도별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 내 혁신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향후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작·간접적 일자리 1만명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혁신 협력체계 구축 방안' 및 지자체 혁신성장 주요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21일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2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계획·사업을 심의·조정·평가·관리하는 등 혁신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단과 지역혁신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시도의 실·국 내에 설치되는 지역혁신지원단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

담 조직이다.

지역혁신지원센터는 협의회의 혁신 교육과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발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이뤄진 지역혁신 주체의 활동을 모두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 군청위, 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정례적 소통 채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혁신성장 지원계획도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 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고임금, 노사문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공장 증설투자 의향이 있지만, 용지와 물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올촌2산단을 조기 매립해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한 달 앞 전시작품 첫 공개

북한 미술품 22점 반입

2018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시작이 처음 공개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미술품도 최근 국내에 반입돼 다음주께 전시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8일 광주비엔날레 2전실에서 전시작 공개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방글라데시 작가 무넴 와시프의 '씨앗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다. 30여개 프린트로 구성된 전시작은 쌀을 활용한 평면 작품으로 식민지의 아픔을 담고 있다.

행사 기간 중 선보일 북한미술 22점도 반입됐다. 인민미술가 최창호·공훈예술가 김인석 등 32명의 작품으로 대형 집체화 6점이 포함됐다. 작품은 현재 서울에서 표구 작업중이며 문화전당으로 옮겨온 후 마무리 작업과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창호 작가 등 북한미술가 3명의 광주 방문은 초청장에 대한 복측의 답장이 아직 없는 상태다.

한편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광주비엔날레 등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총 43개국 165명의 작가가 참여해 동시대 경계에 대한 이슈를 풀어낸다. 행사는11명 큐레이터의 7개 전시인 주제전과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GB커미션', 해외 미술기관이 참여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공원 음주·새벽잠 깨우는 소음
-폭염에 열병게 하는 끝불견 추태 ▶6면
너 때문에 울고 웃는다
-프로야구 천적 드라마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2-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번길 20 (소촌동)
수안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대로 520(수안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평균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작동7단), 복합회합유도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자료를 의미하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